

[기고] 반복되는 침수 피해, '선제적 재해 예방'으로 끊어야

☞ 김인철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장 | Ⓞ 승인 2025.10.29 15:15

매일일보자 | 최근 쏟아지는 비는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무섭게' 쏟아붓고 있다.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3년간 해남군은 크고 작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9월, 산이면에 36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해남군 평균 26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단 며칠간의 집중호우로 농경지 3,500여 헥타르(ha)가 침수되고 제방 5개소가 유실됐다. 한 해 농사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농민들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통감했다.

해남의 광활한 간척지대는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하며, 이는 우리 밥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식량 주권'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이처럼 절박한 시기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농민들이 재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가 추진하는 이 사업들은 단순한 피해 복구가 아니다. 반복되는 재해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과거의 강수량 기준이 아닌 미래의 극한 호우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이다.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저지대 간척지 농업에 배수개선사업은 생명줄과도 같다. 상습 침수 구역에 강력한 펌프 능력을 갖춘 배수장을 신설·확충하고, 물길(배수로)을 정비하여 빗물을 신속하게 바다로 빼내는 작업이다.

현재 해남완도지사는 7개 지구를 추진하며 기후위기에 맞선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장 김인철

◇튼튼한 물그릇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금호호, 고천암호 같은 거대 방조제는 바닷물을 막고 귀중한 농업용수를 담아두는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보강이 시급하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이 생명줄 같은 저수지와 방조제를 튼튼하게 보수·보강하는 유지 전략이다. 16개 지구를 통해 독을 높이고 비상 물길을 확보하는 등, 어떤 큰비에도 끄떡없는 농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 외에도 농업용수, 경지정리, 지표수보강, 국가관리방조제 등 농업 기반을 다지는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다. 저희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농어촌 재해 예방의 최전선에서, 해남 땅끝 들녘의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제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 농어촌과 국민 여러분의 밥상을 든든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철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장